

고창 갯벌 위 생명의 신비로움... 희귀 조류 140종 관찰

빅버드레이스 전국 38팀 136명 참여...전년 관찰종보다 30종 늘어 첫 관찰 '민당기물떼새' 관심...최다 관찰한 '호반새' 팀 대상 수상

고창을 찾는 희귀 조류를 관찰하는 '제2회 고창갯벌 빅버드레이스(Big Bird Race)' 행사가 최근 고창갯벌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빅버드레이스는 환경의 가치를 되새기고 멸종위기 및 희귀조류를 찾고 탐구하며 사진을 찍는 행사다.

고창군, 문화재단, 전북도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접수 당일 신청이 마감되는 등 전국 탐조인부터 가족, 동호회 등 총 38팀 136명이 참여해 호응을 얻었다.

이번 탐조대회를 통해 약 140여 종의 조류가 관찰됐으며 지난해 관찰종인 110여종보다 30종이 늘

어났다.

특히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으로 IUCN 적색목록에 '위급(Critically Endangered, CR)'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약 120여 개체만 존재하는 '빨제비갈매기'를 포함해 알락꼬리마도요, 큰뒷부리도요, 붉은어깨도요, 검은머리물떼새, 흰목물떼새, 수리부엉이, 잣빛개구리매 등의 멸종위기기에 처한 법정보호종이 고창갯벌 일원에서 관찰됐다.

또 기후변화생물지표종인 '흰날개해오라기', '검은머리직박구리'를 비롯해 IUCN 적색목록에서 관심대상종으로 분류되며 국내에서는 희귀한 나그네

새로 알려진 '민당기물떼새' 등이 고창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관찰돼 관심을 모았다.

대회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조류를 관찰한 '호반새'팀이 대상에 차지했으며 최우수상 '빨제비 사랑' 우수상 '추억지기', '쇠붙은매'팀이 수상했다.

또 특별상에는 '좋아요'와 '새와사람사이'팀이, 최연장자 참가상은 '맹순씨네', 최연소 참가상은 '버드세이버'팀이 각각 수상했다.

고창군은 이번 수상작들을 고창 각지의 철새 기록을 담은 '갯벌 키퍼스' 프로그램을 활용해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갯벌 빅버드레이스 행사를 통해 갯벌 세계자연유산의 가치를 널리 홍보하고, 위협이 아닌 새와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올바른 탐조 방법이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지난 21~23일 사흘간 고창갯벌 일원에서 열린 '제2회 고창갯벌 빅버드레이스'에서 참가자들이 행사 종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또 매각 취소... 남원 효산콘도 안풀리네

낙찰 업체, 잔금 시한 넘겨 시, 조만간 재공매 절차 시작

도심 속 흉물인 남원의 효산콘도(사진) 매각이 또다시 실패했다.

남원시는 효산콘도를 낙찰받은 A업체가 기한 안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다시 재공매 절차를 밟는다고 25일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달 초 35억여원에 효산콘도를 낙찰받았으나 잔금 납부 시한을 지키지 못해 매각 결정이 취소됐다.

효산콘도는 지난해 말에도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매각이 취소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조만간 재공매 절차를 시작할 방침이다.

효산콘도는 1991년 남원 신촌동에 지하 2층, 지상 9층, 285실 규모로 건립돼 지역을 대표하는 관



공숙박업소로 기능해왔으나 경기 불황과 모기업의 부도로 지방세 등을 체납하며 2005년 관광숙박업 등록을 취소당했다. 이후 18년이 넘도록 새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방치돼 도시 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A 업체가 투자자를 찾지 못한다 새로운 유치권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끝내 유찰된 것으로 안다"며 "관심 있는 업체들이 여전히 많은 만큼 조만간 재공매 절차를 거쳐 새 주인을 찾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교육청-고창군, 학생체험단 유치 협력

전북교육청과 고창군이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학생체험단 고창 유치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서거석 교육감과 심덕섭 군수는 24일 고창군청에서 글로벌 인재 양성, 돌봄 시설 확충 등 교육 현안에 협조하기 위해 '전북교육청-고창군 교육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소멸 위기와 학생 수 급감이라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의 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도 교육청과 고창군은 이날 '세계

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활용한 학생체험단 고창 유치에도 힘을 모으자고 약속했다.

심 군수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에서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주도적인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거석 교육감, 유승오 교육장과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고창군이 인재 양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감사하다"면서 "고창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창 교육, 나아가 고창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의회, 동학혁명 기념곡 제정 촉구

건의문, 정부 전달키로

정읍시의회가 동학농민혁명의 자율·평등·개혁 정신을 널리 알리고 정신을 계승하고자 '동학농민혁명 기념곡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읍시의회는 건의문에서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 근대사 최대의 사건으로 반봉건·반침략을

추구한 농민봉기였고 을미의병, 3·1운동 등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신호탄이 됐다"라며 "그런데 혁명과 관련한 기념곡 하나가 없는 만큼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곡 제정과 제창을 관련법에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 전북도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 70세 이상 어르신 '완전 무상 교통'

6억5000만원 투입 7월부터 시행...1만7500명 혜택

남원지역 어르신들이 7월부터 완전 무상 교통 지원을 받게 된다.

남원시는 어르신들의 교통비 절감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관내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완전 무상 교통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행은 7월1일부터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6월 중 무상 교통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앞서 남원시는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와 협력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교통 약자인 어르신들께 편리한 대중교통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지수를 높여 삶의 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6월 중 무상 교통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앞서 남원시는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와 협력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교통 약자인 어르신들께 편리한 대중교통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지수를 높여 삶의 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시 어르신들이 줄지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정읍시장배 유도대회' 성황리 마무리

학생·일반부 44개 체급 경기 열려

정읍시가 후원하고 정읍시 유도회(회장 박상중)가 주관한 '제8회 정읍시장배 유도대회'가 지난 22일 전북과학대학교 내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정읍시 유도 동호인 170여명이 참가해 상호 간의 단합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초·

중·고·대학부와 일반부 남녀선수 44개 체급으로 구성된 개인전과 단체전을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져 체급별로 59명이 1위를 거머쥐었다.

정읍시 관계자는 "기량을 최대한 발휘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정정당당 멋진 경기를 펼쳤다"면서 "이 대회가 우리 지역의 유도 꿈나무 선수들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과 함께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목장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수목장의 장점

- 반영구적 사용가능
- 관리의 간소화
- 낮은 관리비
- 자연과의 동화
- 후손들의 부담 감소

※ 윤달 이장 상담 가능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메모리얼 가든

24시간 연중무휴

☎ 062-464-3466